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쁠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성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밖에서 갑자기 “캉!” 하고 천둥소리가 크게 들리면 어떻게 하나요? 깜짝 놀라 얼마나 아빠에게 달려가 “무서워요!” 하고 꼭 안길 수도 있어요. 넘어져서 아프거나, 길을 잃을 것 같아 무서울 때도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우리에게서 무서울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아주 든든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는 힘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무서운 전쟁을 겪기도 했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윗과 함께하시고, 다윗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커다란 바위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밤에 혼자 자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고,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혼나서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마음속 기도까지 모두 들으세요.

우리 함께 크게 말해 볼까요?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래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나를 나를 특별하게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하 22:1~25절 다 같이

설교 힘들 때 하나님을 불러요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나를 나를 특별하게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다윗을 어려움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심을 믿어요.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다윗이 힘들 때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2. 우리가 무섭고 힘들 때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